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21호) 2011. 04. pp.201~227

도시생태와 시적 상상력 The Urban Ecosystem and Poetic Imagination

김정배 (원광대 강사)

차 례

- | | |
|---------------------|------------------|
| 1. 서론 | 4. 도시구조물의 시적 내면화 |
| 2. 도시환경의 비판과 긍정적 수용 | 5. 결론 |
| 3. 복제된 자연으로서의 도시생태 | |

1. 서론

한국 문학에서 생태학적 관심이 본격적으로 고조된 시기는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¹ 이른바 생태의식이나 생태학적 상상력에 기댄 비평적 담론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자본과 물질문명에 기대어왔던 인간 중심주의의 삶과 세계관에 일대 전환을 촉구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당대 문학 담론의 한 주류를 형성하기도 한다. 생태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날로 증폭됨에 따라 문학작품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생태시를 쓰거나 생태학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시인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이 도

1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29~43쪽 참조.

2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시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이 주거의 기능을 넘어 불가피한 삶의 공간임을 암시한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200여 년 전부터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개발도상국 또한 2차 대전 이후 근대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히 이루어져 왔다. 세계의 도시화 추세를 보면 1990년에는 세계 인구 중 도시 거주자가 45%였으나, 2010년에는 56%로 증가한다. 우리나라의 도시 인구는 2000년 이후 약 87%로 집계된다.² 이런 현실에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같은 피상적이고도 단순한 시적 상상력들은 독자의 호기심을 더는 자극하지 못한다. 또한, 표층적인 시각의 생태학적 시편의 반복적인 생산은 독자에게 구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쯤 해서 우리는 종전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생태학적 상상력에 대한 논의를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

북친의 말을 빌리자면 제2자연에서 제1자연으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³ 도시라는 공간에서 자연으로의 회귀라면 더욱 그러하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연’이라는 개념에 대해 더욱 광범위하고 유연한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⁴ 사실 현재 도시에서 사는 현대인들은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나 동화를 원치 않는다. ‘자연과 미메시스적 화해’⁵를 통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과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에 친근하게 접근한다. ‘생태’ 혹은 ‘생태시’가 직접적으로는 산업사회의 본격적인 진행과

2 윤성탁, 『환경 생태학』, 아카데미서적, 2004, 25쪽.

3 북친은 “원초적인 자연으로서의 제1의 자연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인간중심적 사고가 내재해 있는 다소 문화적인 요소로서의 제2자연에 천착하는 것이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위한 시작”임을 주장한다. 또한 북친은 “자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등은 자연 속의 유기체들의 상호 협력, 즉 공생에 의해 극복 가능함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통한 진화적 발전을 새로운 생태학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J. R. 데자르맹, 김명식 역, 『자유와 생태학』,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자작아카데미, 1998, 334쪽.;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71~72쪽 참조.)

4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객체의 모방으로 간주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국가론』에서 그는 비극시인들을 비판하면서 시, 예술, 문학이란 이데아를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하는 ‘2차 모방’의 유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본질적인 이데아를 찾기 위한 철학정신이 사회적으로 요청된다고 주장”한다. 아도르노는 미메시스를 스스로 움직이는 자연(physis)에 우선성을 두고 그것에 친근하게 접근하려는 태도로 전회시킨다. 이동수, 『자연과의 미메시스적 화해』,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9집, 한국현상학회, 2002, 11, 121~122쪽 참조.)

5 위의 글, 121쪽.

함께 전개되었음을 판단해 볼 때 도시생태의 문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자연” 혹은 ‘생태’라는 개념을 생태학적 상상력으로 구현하는 생태시와 단순한 자연 친화와 자족적 충일감을 노래한 작품과도 구별⁶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생태가 생태문학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비해 아직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⁷ 도시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는 일련의 연구도 도시생태에 대한 미학적 가치보다는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주를 이루어 왔다. 도시생태를 환경오염과 생태 위기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관점은 어쩌면 윤리적이고도 실천적인 해결 방안은 될 수 있으나 문학 고유의 완성도를 결여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더불어 근대화의 논리 앞에 ‘자연’과 ‘인간’을 이분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내재한다.⁸ 물론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만큼 생태계 파괴나 환경 위기에 대한 견해를 살피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생태 담론의 기본적인 취지를 생각한다면 환경 정의의 측면 또한 어느 정도의 수용여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자칫 자연은 선이고 문명(도시)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한계를 그대로 노출할 뿐만 아니라 생태 미래를 향한 시적 대응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 생산적이지 못하다. 또한,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도시생태의 표층생태학적 시각은 도시에서 대부분의 일상을 소화하는 현대인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느낌마저 들게 한다. 구호에 가까운 생태 담론이 반복되고 증폭

6 강연호, 「생태학적 상상력과 현대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9집, 2008, 6, 116쪽.

7 이혜원, 「도시 생태의 시적 수용과 전망」, 『문학과환경』 제7권 2호, 2008, 12, 116쪽 참조.

8 이경수는 이에 대해 초창기 생태주의 담론이 지니고 있는 문제의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하며 시를 창작하는 부류와 또 하나는 자연을 아름답고 신비롭게 그리는 부류라고 말한다. 전자의 경우 대개 환경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다 보니 문제의식이 작품을 앞서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의 윤리적인 태도를 강요하는 성향이 나타난다고 본다. 후자의 경우에는 생태주의를 현재의 문제로 보지 못하게 하는 맹목에 빠질 우려가 있음에 주목한다. (이경수,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307~308쪽 참조.)

4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될수록 오히려 생태문학에 대한 관심은 소외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생태문학이 현실적인 삶과 호흡하기 위해서는 도시생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미학적 가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도시생태에 대해 살펴보고 그 시적 상상력의 구현 양상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는 생태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적 대안이기도 하면서 생태문학의 미학적 가치의 완성도를 추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주지하듯 현대인들은 대부분 시간을 도시에서 소비한다. 도시는 산업화에 따른 산물인 동시에 어떤 측면에선 인간과 자연과 공존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동행자의 입장을 견지한다. 따라서 도시생태라는 개념을 도시와 자연 혹은 인간의 상호작용과 시적 교감에 대해 초점을 두면서 도시생태가 갖는 미학적 가치에 주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도시생태를 기반으로 한 시적 상상력의 구현 양상을 크게 도시환경의 비판과 긍정적 수용, 복제된 자연으로서의 도시생태, 도시구조물의 시적 내면화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특징적 면모는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때론 독자적으로 그 시적 특질을 드러내기도 할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숙고하면서 도시생태 안에서 발현되는 시적 상상력의 구현 양상과 그 미학적 가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도시환경의 비판과 긍정적 수용

문학의 관점에서 생태학은 사실 단순히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라 문학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근본적으로 “문학은 ‘자연이나 환경에 대한 형상화 작업’인 동시에 본질적으로도 ‘생태와 밀접하게 관련’”⁹ 된다. 문학은

9 강연호, 앞의 글, 114쪽.

생명 존재들에 대한 존중과 연민, 그리고 자연에 대한 이해와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녹색'¹⁰이며, 또한 “모든 진정한 시인은 가장 심오한 생태론자”¹¹라는 점에서도 문학은 기본적으로 생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입장을 고려해 볼 때 도시에 사는 현대인들에게 자연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하다. 마치 고향을 떠난 자만이 고향을 그리워할 수 있듯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자연에 대한 동경이나 교감은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정책이 생태계 파괴를 불러온다는 데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시인들은 자연에 대한 낭만성의 추구보다는 생태 위기에 대한 문학적 대응에 앞장서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대체로 도시의 환경을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바퀴 달린 기계들이 질주하는 아스팔트다

작은 차들이 큰 차에 대해 공포를 느끼는 아스팔트다

-최승호, 「봉봉거리는 풍경」 부분¹²

유령들처럼은

발자국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유령들처럼은 정말 걷지 않겠노라 생각하면서

이끼 한 조각 없는 넓은 아스팔트 위를

-최승호, 「발걸음」 부분¹³

10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22쪽.

11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2003, 6~7쪽.

12 최승호, 『고슴도치의 마을』, 문학과학사, 2000.

13 최승호, 『자코 메티와 늙은 마네 킹』, 뿔, 2008.

6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아스팔트 속으로 제 대가리를 밀어 넣었을 거북이들!
 보이라 이 망할 놈의 나라 도로 곳곳에
 오늘도 물러를 단 공사용 차량이
 갈라터진 길바닥에 새 아스콘을 붓고 다지는 걸
 아스팔트 속의 거북 수천 마리가 떼죽음, 압사를 당하는 걸

-유홍준, 「아스팔트 속의 거북이」 부분¹⁴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맨 먼저 변화된 것은 길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 중 대부분은 아마도 온 종일 흙을 밟지 못하거나 흙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는 게 현실이다. 도시에서의 길은 딱딱한 이미지 그 자체이다. 마치 “도시는 딱딱하다/점점 더 딱딱해진다(…) 딱딱한 것들을 부수고/더운 곳에 물을 대며/살아가던 농촌에도/딱딱한 건물들이 들어선다(…) 아파트 난간도, 버스 손잡이도, 컴퓨터 자판도/빵을 찌는 포크처럼 딱딱하”(함민복, 「감축여행」 부분)¹⁵ 게만 느껴진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변화는 민감한 시인들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자본과 물질문명에 대한 염려까지도 동반한다.

위에서 인용한 시 세 편 모두 딱딱한 아스팔트에 대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시적 화자의 눈에 띄는 아스팔트는 대체로 도시적 삶의 부정적인 면을 묘사한다. 아스팔트는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곳’인 동시에 경쟁을 부추기는 공포의 장소이기도 하다. 「붕붕거리는 풍경」 자연이라는 공간에서 멀어져 도시라는 공간 속에 편입되어 살아가는 인간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아스팔트가 늘어날수록 산과 들은 파헤쳐지고 그 속에서 생의 터전을 잡았던 생태계의 일원들은 자연히 갈 곳을 잃고 멸종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현대인들은 “이끼 한 조각 없는 넓은 아스팔트 위”(「발걸음」)를 거닐

¹⁴ 유홍준, 『나는 웃는다』, 창작과비평사, 2006.

¹⁵ 함민복, 『말랑 말랑한 힘』, 문학세계사, 2005.

도시생태와 시적 상상력 7

면서 자연의 내밀함과 다소 동떨어진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망할 놈의 나라 도로 곳곳에/오늘도 롤러를 단 공사용 차량”(『아스팔트 속의 거북이』)은 아스팔트를 보수하고 넓히는 데 여념이 없다. 시적 화자는 풀 한 포기조차 비집고 나올 수 없는 현실의 삶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꽃과 동물의 길이었던 도시의 길에서 제재할 수 없는 도시환경의 부정적인 측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무늬아를 낳고 보니 산모는
몸 안에 공장지대가 들어선 느낌이다.
젖을 짜면 흘러내리는 허연 폐수와
아이 배꼽에 매달린 비닐끈들.
저 굴뚝들과 간통한 게 분명해!
자궁 속에 고무인형 키워온 듯
무늬아를 낳고 산모는
머릿속에 뇌가 있는지 의심스러워
정수리 털들을 하루종일 뽑아댄다.

-최승호, 「공장지대」 전문¹⁶

이 작품은 생태계 파괴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예라 할 수 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도시는 일종의 공장지대이다. ‘공장’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도시와 함께 발전한 장소이다. 시적 화자는 공장이 들어선 도시를 산모의 몸과 동일시하면서 비극적인 행위를 연출한다. 산모는 무늬아를 낳은 충격의 결과가 “굴뚝과 간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그로테스크하고 무미건조한 시적

16 최승호, 『세속 도시의 즐거움』, 세계사, 1997.

8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표현은 “정수리의 털들을 하루종일 뽑아”내는 행위로 이어진다. 산모의 젖은 “허연 폐수”로 가득하고, 아이의 배꼽은 “비닐끈”이며, 산모의 자궁 속은 마치 “고무인형 키워온 듯”한 괴기함과 끔찍함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인간은 이렇다 할 대책도 반성도 없이 도시 속에 공장지대를 건설해왔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과 무분별한 자연 훼손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결국 유일한 피해자는 원인을 제공했던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도시생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표층생태학의 시각보다는 심층생태학의 시각이 시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더 유용해 보인다는 것이다. 심층생태학은 개체들과 공동체들, 자연과 만물 사이에 새로운 균형과 조화를 모색하는 범생명주의적 생명평등주의를 의미한다.¹⁷ 이러한 시각은 도시생태에 대한 문학적 접근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 줄 뿐 아니라 도시 속의 자연에 대한 긍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요한 매개로 작용하게 된다.

방아깨비 한 마리를 내가 사는 아파트의 빈터에서 서성대다 발견했다. (...) 풀무치는 초록의 길을 따라, 산이나 들에서 이 도시의 깊은 곳으로 왔다. 처음엔 들판에서 쉽게 이어진 초록의 길이 도시 변두리의 빈터로 이어졌으리라. 그 다음엔 우리가 모르는 풀에서 풀로 이어진 길이 풀무치를 미세하게 이끌었으리라. 그렇다, 이 도심의 회색 콘크리트의 세계에도 자세히 보면—풀무치의 눈으로 보면—들과 산으로 이어진 초록의 길이 있다.

—이하석, 「초록의 길」 부분¹⁸

17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는 1973년 표층생태학과 심층생태학을 구별하면서 인간중심적인 사고를 넘어 생태계의 모든 유기체들과 존재들이 모두 동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심층생태학적 입장을 철학적으로 심화시킨다. (김육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28쪽.; 홍현택, 『생태문화론의 현황과 그 지평』, 『문학비평』 창간호, 122쪽 참조.)

18 이하석, 『우리 낯선 사람들』, 세계사, 1990.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로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잘리고 갇힌 것들이
 자투리땅에서 이렇게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다
 콘크리트 갈라진 틈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 저돌적인 고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 붙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김기택,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 부분¹⁹

위의 두 시편은 도시라는 공간이 어찌면 꼭 절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도시화가 진행된 인공적인 환경 속에서도 시적 화자는 ‘풀무치가 지나왔을 초록의 길’(「초록의 길」)을 떠올리게 된다. 이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도시의 환경 속에서도 작은 생명과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암시한다. 시적 화자는 삭막한 도심의 회색 콘크리트의 세계에서도 풀무치가 살아가고 있음에 감동하면서 새로운 도시생태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적 양상은 「초록이 세상을 덮는다」의 시편에서도 확인된다. 시적 화자는 ‘초록’에 대한 기억을 잊지 못한다. “흙이란 흙은 도로와 건물은 모조리 딱딱하게 덮인 줄 알았는데/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다”고 고백하는 화자의 시선은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말해준다.

¹⁹ 김기택, 『소』, 문학과 지성사, 2005.

10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3. 복제된 자연으로서의 도시생태

도시생태학의 입장에서 도시는 “생물학적 생태학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쟁, 침입 및 계승의 과정을 거쳐 ‘자연 상태의 지역’으로 정돈”²⁰된다. 도시는 인간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모두에 공통으로 공존하는 생태공간이다. 도시는 그 자체로 발전과 근대화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도시적 삶을 통해 획득되는 구체적인 이익과 편익을 누리는 실질적인 조건’²¹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최근 도시의 개념은 인간의 거주지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식생 및 다른 동물들을 포함하는 생태계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이것은 도시를 하나의 살아 있는 유기체로 간주해서, “인간과 자연계의 관계와 구조, 기능, 변화와 발달 등의 법칙성을 규명”²²하려는 도시생태학의 개념과 연계된다. 나아가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도시생태의 부정성을 넘어 함께 공존하고 교감할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시적 인식과 시선을 요구한다.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한 뼉씩 내어준 텃밭에
주민들이 고구마 옥수수 가지 토란 콩 등숙을 심었다
이랑을 돋우고 비닐도 씌워주고 시든 잎은 솟아내고
고추와 오이는 지지대도 튼튼히 세워주고
주말마다 텃밭을 일궈 아이들 교육이나 삼자며
다들 소란스럽게 행복했는데

장맛비 몇 번에 텃밭은 그만 홀랑 물웅덩이로 변했다

²⁰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516쪽.

²¹ 조명래, 『현대 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233쪽.

²² 윤상옥, 『도시와 생태』, 문음사, 2011, 52쪽.

배수가 안 되어 벌건 황토물이 가득 출렁대자
고추와 가지 등은 벌써 썩어가기 시작했다
잠깐의 주말농장에 대한 낙담이 심했는지
누구도 나와 돌보는 사람이 없었다
겨우 한 뼘씩의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았겠는가마는
둘러보면 웬지 이건 아니다 싶게 섭섭했다

그런데 물에 잠긴 텃밭이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흙탕의 수면 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을 동동 구르는 소금쟁이들이 먼저 보였다
이어서 어느 틈에 떼로 모여든 올챙이와 송사리들
그리고 뭇 잡아보겠다는 건지 페트병을 들고 나온 아이들
장마 끝나면, 고인 물 위로
파란 하늘과 양떼구름까지 모여들 것이다

그렇게 모두 대책회의처럼 모여들어 한 근심해주자
텃밭은 불끈 새 힘을 얻었는지
이윽고 옥수수와 토란부터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다
물론 흙탕물에 옷 버린다고 야단치며
어른들은 아직 아이들을 집으로 거두어가기 바빴다
아파트 주민들이 다시 행복해지기까지
텃밭에 어른들이 제일 늦었다

-강연호, 「텃밭」 전문²³

23 『시작』, 2006년 가을호.

12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제21호)

일반적으로 ‘텃밭’은 집터와 밭을 함께 아우르는 말이다. 작품 속에 묘사되고 있는 텃밭은 웬지 아파트라는 주거공간과 어울리는 듯 하면서도 한편으론 어색한 느낌이 든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한 뼘씩 내어준 텃밭”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 즐거움 속에는 도시 속에서도 자연 일부를 경험하고 있다는 안도감의 다른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텃밭을 얻은 주민들의 행복함은 “장맛비 몇 번”에 사라지고 만다. 주민들은 “배수가 안 되어 벌건 황토물이 가득 출렁대자” 텃밭의 황폐함에 즉각적으로 낙담하게 된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도시생태 안에서의 그 텃밭이 새로운 땅으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생명감은 ‘소란스러움’으로 표현된다. 이는 어른들의 인간중심적이었던 ‘소란스러움’과 곧바로 대비되면서 도시생태 안에서의 생명의 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 생명의 재건에 앞장선 것은 다름 아닌 조금 쟁이들과 올챙이와 송사리들이다. 거기에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것들과 교감한 아이들의 역할이 크다.

도시 속에서 더욱더 자연을 만끽하고 싶은 시인은 이제 자구책의 하나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자연에 눈길을 돌리게 된다. 산업화에 따른 생태위기의 극복 방안의 하나로 오늘날의 많은 시인은 수많은 자연을 복제하여 도시라는 공간 속으로 가져온다. 인공적이긴 하지만 아파트 곳곳에는 자연 못지않은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도심 곳곳에는 일차적인 자연에 견줄만한 공원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도시에 살면서도 시인들은 자신이 자연과 격리되었다는 사실을 사실상 의식하지 못한다. 그 자연은 ‘미니어처’ 처럼 축소된 형식으로 도시 곳곳에 자리한다. 주목할 것은 그 자연이 아파트라는 내면의 공간에도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자연은 시인 스스로 베란다에 조성한 작은 꽃밭일 수도 있고 화분처럼 이동하기 쉬운 자연의 형상일 수도 있다.

어느 날 화분이 배달되었다

나에게도

땅이 생겼다 부드러운

흙, 나는

저기에 묻힐 것이다

화원 앞을 지나다 보면 유리창 너머

관객들이 황홀하게 놓여 있다 아름다운 봉분처럼 자라는 나무들, 꽃들

스무 평의 적막에도 햇살과 바람이 흠모하듯 스며와

지금은 저기에 양란이 꽃을 피우고 등 구부린 시간이

신혼처럼 살고 있다

내 무덤은 향기로울 것이다

먼 나라의 춤을 푸는 나비처럼은 아니지만, 언젠가 꽃이 진 허공, 그 맑은 높이
에 나는

내 영혼을 띄워둘 것이다

저 동굴을 안고 기다리면 아프지 않게 늙을 수 있겠다 수치를 꽃대처럼 비우
고 나면

거친 그리움도 이제는 자연사할 수 있겠다, 있겠다

—신용목, 「화분」 부분²⁴

²⁴ 신용목,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문학과 지성사, 2004.

14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제21호)

화분은 플라톤적 미메시스이다. 화분은 자연을 모사한다. 그러나 화분 그 자체를 자연이라 말할 수는 없다. 화분은 자연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도시적 미메시스이기 때문이다. 고진식으로 말하면 화분은 전도된 자연인 셈이다.²⁵ 인용한 작품 「화분」에서 시적 화자는 아파트 안으로 '자연'을 배달받게 된다. '배달'이라는 어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자는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현대인의 모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시적 화자는 마치 작은 '화분'을 얻고 자연의 모든 것을 얻은 양 기뻐한다. 어쩌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에게 자신이 묻힐 곳이 확보되었다는 사실은 더없는 축복일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도시에 살면서도 인간은 언제든지 자연과 교감하고 생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보여준다. 시적 화자는 일차적인 생태환경 혹은 자연에서나 가능한 일들을 떠올린다. 작은 화분 속에 무덤을 만들어 묻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영혼을 띄워둘 것"을 기대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적 화자에게 화분을 통해 부여되는 무덤의 이미지는 결코 두렵다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게 해주는 고마운 매개체이다.

이월 묘목시장에서 배롱나무 묘목을 사다가 베란다 정원에 심었다

-김백겸, 「배롱나무 이야기」 부분²⁶

봄날 저녁, 잠시 비오고 향사 섞이고

문득 아파트 베란다가 들쭉거린다

나가 보니 한쪽 구석을 차지한 상추 모판에서

²⁵ 고진의 용어를 빌자면 특정한 세계관을 통해 주체와 객체의 상호 관계가 뒤바뀌거나, 주체를 구현하는 방식에 따라 객체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현상 또는 그러한 사고체계를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고진은 오늘날 실존적 주체로 인지되는 '내면'과 그 외부에 놓이게 되는 '풍경'이 특정한 관점에 의해 전도되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참조.)

²⁶ 김백겸, 『문학 청춘』 2011년 봄호.

새 생명들이 지구를 뚫고 나온거라
 지구를 한 번 들었다 내려놓고 나온거라
 겨드랑이마다 뺄뺄쫄쫄 솟아오른
 간지러운 엽록소의 깃털을 푸드덕거리며
 다들 마저 활개치지 못해 안달이다

-강연호, 「봄날 저녁의 우주」 부분²⁷

자연의 복제로서의 생태는 도시 속에 사는 시인들에게 그리 낯선 풍경만은 아니다. 일차적인 녹지 공간에 심어야 했던 나무를 “베란다 정원”(「베롱나무 이야기」)에다가도 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도된 자연의 모습은 「봄날 저녁의 우주」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라는 공간 속에 상추 모판을 들여놓는다. 현대인의 생활습관에 맞게 설계된 공간 속에서 화자는 작은 ‘상추 모판’을 통해서도 우주의 깊이를 깨닫는다.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음에 감탄하기까지 한다. 그 감동은 “새 생명들이 지구를 뚫고 나오”거나 “지구를 한 번 들었던 내려놓”는 놀라운 시적 상상력으로 현현된다. 자연은 얼마든지 ‘미니어처’의 형식을 통해 아파트라는 공간, 나아가 도시생태에 또 다른 자연의 모습으로 동참하면서 적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도된 자연, 혹은 복제의 형태를 띤 공원이나 화분은 많은 시인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자연과의 미메시스적 화해는 자연에 대한 맹목적인 순응이나 동화가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과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자연에 친근하게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인간은 전율하고 자연미를 느끼는 것이다.

²⁷ 『오늘의 좋은 시』, 푸른사상, 2005.

16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4. 도시구조물의 시적 내면화

시는 제2의 자연, 즉 태초에 창조된 자연이 아니라 시적 창조에 의한 자연을 창조한다. 이는 근대의 문명인에게 자연은 현실이 아니라 욕망의 관념적 또는 상상적인 영역이 된다.²⁸ 근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오늘날의 어제의 반복이지만, 근대인들에게 오늘은 어제의 부정이 되기도 한다. 이는 도시 속에 편입된 시인들의 생태학적 상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인들은 도시의 역동적인 구조 속에서 또 다른 생태를 체험하기도 한다. 유성호가 이미 지적한 대로 “일반적으로 도시 사람들의 경험 및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 구조는 평균적이고 획일화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간 속에서 다양한 차별적 모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성의 이면에는 체제와 환경이 강요하는 획일성 또한 만만치 않게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차별성과 획일성의 묘한 공존이 도시의 생태학이라면 생태학이”²⁹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혼잡함은 어쩌면 생태계의 먹이사슬 구조와 너무나도 닮아있다. 이런 유기적인 흐름은 언뜻 보면 혼잡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도시에서 생활하는 시인들에게는 또 다른 생태의 모습으로 현현된다.³⁰

인부들이 물려와 땅을 파고 아파트를 심은 건
고교입학 무렵이었다 맨 먼저 커다란 파일이 내려가

28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182~242쪽 참조.

29 유성호, 『한국 현대시의 형상과 논리』, 국학자료원, 1997, 479쪽.

30 “거대한 문명의 발명들, 만남의 장소, 도서관과 극장, 타워와 돔, 그리고 고정되어 있기보다는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한 수많은 집과 거리, 잡지, 많은 사람들의 흥분, (……) 스톡홀름과 플로렌스, 파리, 그리고 밀라노의 물리적 차이 속에 동일하게 운동하는 속성들, 그 중심, 그 행위, 그 빛, 또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대 도시의 혼돈과 혼잡을 느낀다. 천연일물적으로 등급화 된 주택들, 낮은 군중들의 압력 (……) 가능성, 만남, 움직임의 느낌들은 도시의 정서를 이루는 불변의 요소들이다.” (R. Williams, *The Country and the City*, 1973, pp.14~15, 유성호, 위의 글, 479쪽에서 재인용.)

지하 깊은 곳에 붉은 뿌리를 박았다
 모세혈관 같은 철근들이 묶이고
 제법 단단한 각질이 덧대어지기도 했다
 시끄러운 소음과 분진을 광합성하며
 자고나면 조금씩 높아지는 아파트,
 그 위를 크레인이 내려다보며 키를 재곤 했다
 건물 층층마다 유리가 끼워지자 가끔씩
 저녁 해가 모서리에서 붉게 터졌다
 어느 날부터는 커다란 광고가 이파리처럼 매달렸다
 분양사무실 철판은 곧 수확할 열매를 위해
 씨방의 규모를 세세하게 적어두었다
 이웃 학교 녀석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공사 중인 아파트로 도망쳐 숨은 적이 있었다

—윤성택, 「아파트 나무」 부분³¹

사람들이 인파 속을 걷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잡은 그녀의 손은

 바닷가에서 주운 돌이었는데도 모른다

 공사중인 빌딩 안으로 그녀는 들어갔다

 반죽은 굳어지기 마련이다

31 윤성택, 『리트 머스』, 문학동네, 2006.

18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제21호)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송승환, 「시멘트」 전문³²

시인의 시적 상상력은 도시의 인공구조물을 자연으로 형상화하기에 이른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같은, 혹은 철골 구조물들은 도시의 자연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아파트 나무」에서 시적 화자는 아파트를 하나의 나무로 본다. 아파트는 “지하 깊은 곳에 붉은 뿌리를 박고” 있는 식물성의 상태로 전환된다. 사실 아파트는 도시 주경환경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마치 나무가 균락을 이룬 것처럼 시인의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는 ‘숲’으로 창조되기에 충분하다. 그런 이유로 아파트는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조금씩 높아”지기도 한다. 마치 광고를 “이파리”처럼 매달기도 한다. 시적 화자에게 아파트는 단순한 시적 차원의 은유가 아니다. 아파트는 시적 화자에게 기존의 자연이 주었던 행복함과 충일감을 선사하는 수행도구로 인지된다. 「시멘트」에서 또한 빌딩은 자연의 한 부분을 연상시킨다. 여자의 손으로 비유되는 돌은 빌딩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더욱 강하게 만들기 위해 섞는 재료 중의 하나다. 시적 화자는 그 돌을 “바닷가에서 주운 돌”이라고만 언급한다. ‘반죽’이라는 단어를 통해 일차적인 자연과 도시의 자연이 어우러지면서 묘한 여운을 남긴다. 공사 중인 빌딩 안에서 그녀의 손은 이미 인공자연과 교감하는 매개체이면서 추억을 환기시키는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 건물의 옥상에는

뿌리를 비좁은 화분 속에 쑥박은 나무들이

³² 송승환, 『드라이아이스』, 문학동네, 2007.

오늘도 시퍼렇게 자라고 있다

그 옥상 바로 밑에 있는 오래된 상영관엘 간 적이 있다

그때 화면 위로 심하게 뿌리던 비는

실은, 옥상에 있던 나무들 뿌리였지 않았을까

뿌리들은 시멘트를 뚫고 내려와

영화 속 우주선이나 항공모함을 타고

이 시간에도 유유히

세계를 누비고 있거나 않을까

그래서일까

그 건물의 옥상에는

사철 시퍼런 이파리들이 지겹지도 않은 듯 팔 벌리고 서 있다

뿌리들은 어느새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흰자위에도 가늘게 뻗어 있다

그들은 언제부턴가 눈에서 눈으로

푸른 상영관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건물의 옥상에는

뒤엉킨 영화필름 같은 활엽수림이 있다

바람이 불 때면

어둠을 횡단한 뿌리들 모험담들로

무수한 이파리들이 술렁거린다

-문성해, 「활엽수림 영화관」 전문³³

20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제21호)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는 영화관의 화면에서 “나무들 뿌리”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그 나무들의 뿌리는 도시생활의 피로를 대변하듯 시적 화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중국에는 “시멘트를 뚫고 내려와/영화 속 우주선이나 항공모함을 타”기도 하며, “영화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 흰자위에도 가늘게 뻗어”가기도 한다. 시적 화자에게 도시의 나무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영화관 일부이기도 하며 도시의 공간을 내면화한 현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시인은 도시생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기존의 일차적인 자연에서 벗어나 새롭게 창조된 도시생태에 주목한다. 이러한 일련의 시편들은 단순히 생태위기의 선부른 깨달음이나 추상적 당위론에서 벗어나 도시생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처럼 시인은 도시라는 공간을 시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생태로 전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다양한 이미지 전환을 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자연을 형상화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인의 내면화 과정이 창조해낸 시적 자연이면서 도시가 주는 문학적 생태라 할 수 있다.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시인은 기존과는 다른 생태를 체험하고 이미지화함으로써 문학의 미학적 가치와 새로운 생태 담론을 진전시키게 되는 것이다. 도시구조물을 통한 시적 내면화의 작업은 어쩌면 도시가 혼잡하면 혼잡할수록 역동적으로 묘사될 가능성이 크다. 도시의 혼잡함은 오히려 시인에게는 시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주요한 매개체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5. 결론

이 글은 도시생태를 기반으로 하는 시적 상상력의 양상을 크게 세 가지

33 문성해, 『자라』, 창작과비평사, 2005.

로 나누어 고찰해 보았다. 그 양상은 도시환경의 비판과 긍정적 수용, 복제된 자연으로서의 도시생태, 도시구조물의 시적 내면화이다.

먼저 도시환경의 비판과 긍정적 수용은 도시에 편입된 현대인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감정 혹은 생태위기에 대한 비판의식에 주목하고 있다. 이때의 도시생태는 일차적인 자연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인의 눈에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환경파괴와 생태계 위기라는 표층생태학적 인식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시적 인식의 기저에는 도시생태에 대한 긍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도 전개된다.

두 번째로 복제된 자연으로서의 도시생태는, 그동안 자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없었던 현대인들이 도시의 공원이나 화분을 통해서 전도된 자연을 만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도시생태의 부정성을 넘어 자연적 기능을 문학적으로 회복하는 미학적 인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나아가 도시생태가 생태 담론의 새로운 시적 대안이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여기에서 복제된 자연이란 도시 공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분이나 작은 공원, 텃밭 같은 것을 말한다. 복제된 자연은 일차적인 자연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도시적 미메시스라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전도된 형식의 자연인 셈이다. 이러한 시적 인식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제된 자연이 일차적인 생태의 기능을 충실하게 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구조물의 시적 내면화는 시적 창조의 과정을 거친 도시생태를 일컫는다. 시인의 시적 상상력은 도시구조물 속에 자연의 감각들을 편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도시라는 공간에서 시적 생태로 전환과 새로운 생태 담론의 구실을 하게 된다. 이러한 시적 상상력의 구현에는 기존의 일차적인 자연에서 벗어나 도시 자연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하려는 시인의 시적 의지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가 살펴보고자 했던 도시생태의 시적 상상력의 구현은 생태 담론의 확산이나 도시생태의 새로운 의식의 환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긍정적이

22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제21호)

라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도외시 되어왔던 도시생태의 문제를 문학적 완성도와 미학적 가치의 측면에서 다시금 생각하고 성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기택, 『소』, 문학과 지성사, 2005.
 김백겸, 『문학청춘』 2011년 봄호.
 문성해, 『자라』, 창작과비평사, 2005.
 송승환, 『드라이아이스』, 문학동네, 2007.
 신용목, 『그 바람을 다 걸어야 한다』, 문학과 지성사, 2004.
 유홍준, 『나는 웃는다』, 창작과비평사, 2006.
 윤성택, 『리트머스』, 문학동네, 2006.
 이하석, 『우리 낯선 사람들』, 세계사, 1990.
 최승호, 『세속도시의 즐거움』, 세계사, 1997.
 ———, 『자코메티와 늙은 마네 킹』, 뿔, 2008.
 ———, 『고슴도치의 마을』, 문학과지성사, 2000.
 함민복, 『말랑말랑한 힘』, 문학세계사, 2005.
 『시작』, 2006년 가을호.
 『오늘의 좋은 시』, 푸른사상, 2005.

2. 단행본 및 논문

- 강연호, 「생태학적 상상력과 현대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9집, 2008. 6.
 구자희, 『한국 현대 생태담론과 이론 연구』, 새미, 2004.
 김옥동, 『문학생태학을 위하여』, 민음사, 1998.
 김종철,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삼인, 2003.
 유성호, 『한국현대시의 형상과 논리』, 국학자료원, 1997.
 윤상옥, 『도시와 생태』, 문음사, 2011.
 윤성탁, 『환경생태학』, 아카데미서적, 2004.
 이경수, 『불온한 상상의 축제』, 소명출판, 2004.
 이남호, 『녹색을 위한 문학』, 민음사, 1998.
 이동수, 「자연과의 미메시스적 화해」, 『철학과 현상학 연구』 제19집, 한국현상학회, 2002.
 11.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
 이혜원, 「도시생태의 시적 수용과 전망」, 『문학과환경』 제7권 2호, 2008. 12.
 조명래, 『현대 사회의 도시론』, 한울아카데미, 2002.

24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홍현택, 「생태문학론의 현황과 그 지평」, 『문학비평』 창간호.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역,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 민음사, 1997.

노스롭 프라이,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앤서니 기든스, 김미숙 외 역,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9.

J. R. 데자르탱, 김명식 역, 「자유의 생태학」, 『환경윤리의 이론과 전망』, 자작아카데미, 1998.

Abstract

The Urban Ecosystem and Poetic Imagination

Kim, Jeong-Bae

Most moderns reside within urban area. The urban area today are expected to provide not only residential area but also the role of the nature. Breaking out of the previous concept of urban area, the movement to ecological area where moderns can commune with nature well proves it. This implies that the urban area is becoming a new medium which derives aesthetic value more than poetic material.

It is true that the ecological imagination so far has been bounded in simple enlightenment or mysticismic ecological consciousness about the nature. Repetition of ecological discourse which has become nearly 'a slogan' has a problem in that it results in negligence of ecological literature. Consequently, it drops down the aesthetic value of ecological discourse. To make the ecological literature walk together with real life, there should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urban ecology first. Using the concept of urban ecology more flexibly, the necessity for the expansion of ecological discourse can be brought up.

This study discussed the aspects of poetic imagination on the urban ecosystem. The aspects were defined in three key issues: criticism on

26 한국문예창작 제10권 제1호(통권 제21호)

urban environment and positive acceptance, the urban ecology as the cloned nature, the poetic internalization of artificial structure.

First of all, the criticism and positive acceptance of urban environment focuses on the feeling of the moderns living in urban areas and the criticisms on ecological crisis. The urban ecosystem in this point isn't different from the primary concept of the nature. The features of urban area in poets' eyes are concluded as the shallow ecological consciousness called crisis of ecosystem. However, in the foundation of such poetic recognition, there is an effort to secure positive view on urban ecosystem.

Second, the urban ecosystem as the cloned nature tells that the moderns are enjoying artificial nature through parks and flowerpots in urban areas instead of the nature they couldn't possess privately so far. This implies the negativeness of urban ecosystem has converted into a positive recognition which remedies the natural functions. Besides, it proves that the urban ecosystem has become a new poetic material of ecological discourse. The term, cloned nature, in here indicates the flowerpots, small parks and kitchen gardens that we can easily find in urban areas. These clones natures could be considered as an urban mimesis which is two step far from the concept of primary nature, however, i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it has performed the role of the nature very well.

Lastly, the poetic internalization of urban structures means the urban ecosystem that has went through poetic creation process. Poetic creativeness of poets could be interpreted as a new paradigm of urban ecosystem by reflecting the feelings of nature on artificial structures. In the foundation of such poetic creativeness, there is an poetic willingness of poets to build an image of urban nature breaking out of the primary nature.

This study reviewed and reinterpreted the problems of urban ecosystem which has neglected so far from the view of literal completeness and aesthetic value. The aspects of poetic realization of urban ecosystem discussed in this study has an importance in that it is a new consciousness of ecological discourse or urban ecosystem.

●주제어: 도시생태(Urban Ecosystem), 심층 생태학(Deep Ecology), 복제된 자연(Cloned Nature), 시적 상상력(Poetic Imagination), 시적 내면화(Poetic Internalization), 도시구조물(Urban Structures)